

#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 Children's Motive and Competence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Behavior Problems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한 유 진

Dept. of Child Studies, Myongj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an Eugen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emotional regulation, motive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64 boys and 58 girls in fourth grade and their mothers were selected for the subject. The children were interviewed about eight interpersonal conflict situations, while their mothers completed the CBCL(Child Behavior Check List).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emotional regulation, motive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behavior problems differed according to the children's gender. Girls used more appropriate display rules for managing negative emotions, and more often, prosocial motives than boys. While girls displayed greater immature behavior, boys displayed more hyperactive and aggressive behavior. Negative emotional regulation was the most predictable variable for boy's behavior problems. Positive emotional regulation and prosocial motives were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girl's behavior problems. These findings implicate that emotional regulation and motive for emotional regulation are important factors in preventing behavior problems of school-age children.

**주제어(Key Words):**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정서조절 동기(Motive for Emotional Regulation), 친사회적 동기(Prosocial Motive),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Corresponding Author: Han Eugene, Department of Child Studies, Myongji University, 50-3, Namgajwadong,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Tel: 02-300-1905 Fax: 02-300-1790 E-mail:yjhan@mju.ac.kr

## I. 서론

정서는 사회적 삶을 위한 기초구조를 제공한다. 인간은 기쁨, 행복 등의 정적정서와 분노, 공포 등의 부적정서를 통하여 타인과 연결되고 상호작용 한다. 과거에 정서는 이성과 대비되어 역기능적인 면이 강조되었고, 아동발달 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정서적 경험이 유발되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서조절이란 내적 감정 상태 및 정서와 관련된 생리학적 과정의 발생, 강도, 지속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을 말하며(Thompson, 1994), 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해야 한다는 원칙인 정서 표출 규칙(Ekman & Frisen, 1975)의 사용을 통해 명백해진다. 즉, 정서조절 능력이란 정서경험을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된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Davis, 1995; Saami, 1984; Underwood, Coie, & Herbsman, 1992)으로 정의된다.

타인과 상호 작용할 때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추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기의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다(Kurtines, 1989). 아동들은 정서조절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한다. 아동의 대화를 관찰한 연구(Gottman & Mettetal, 1986)에서, 어린 아동들은 상호작용을 중지함으로써 정서적 각성상태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높은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정서표출 규칙을 구조화하면서 정서를 조절하였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은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아동의 능력은 또래집단에서의 수용 및 또래관계 질(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Hubbard & Coie, 1994), 사회적 지위(Putallaz & Sheppard, 1992)와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들은 부적인 정서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으며 공격적이었다. 반면, 인기아들은

친숙하지 않은 놀이 집단에 처음 진입할 때 집단의 공격성 수준에 좌우되지 않았으며,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내적 반응을 잘 조절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은 정서표출 규칙의 사용과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8~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Underwood et al., 1992)에서는 정서표출 규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정서표출 규칙에 대한 지식과 역할 수용은 사회적 인기 및 교사가 평가한 친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었다(Gamer, 1996).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가장 강력한 예측치는 정서조절, 즉 정서표출 규칙의 사용(McDowell, O' Neill & Parke, 2000)이었다.

반면, 소수의 몇몇 연구(황혜정, 1999; Cole, Zahn-Waxler, & Smith, 1994)들은 정서조절 능력과 아동들이 보이는 부적응 행동에 관심을 가졌다. 정서지능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황혜정, 1999)에서 정서 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가 정서·행동문제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지능의 여러 요인 중에서도 충동을 억제하고 정서를 잘 조절하는 능력이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행동문제를 감소시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망의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그들이 보이는 행동문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Cole et al., 1994). 심한 행동문제 집단의 남아는 실험자가 있는 상황에서 비교집단의 남아보다 부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다. 즉, 심한 행동문제를 보이는 남아는 타인의 상황을 인식하고 배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볼 때 정서조절 양식이 부적응적, 공격적 행동을 유지시키고 문제행동의 안정성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행동문제의 어떠한 하위요인과 관련되는지, 행동문제에 미치는 정서조절의 영향력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서조절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Cole et al., 1994; Davis, 1996; Saami, 1979, 1984;

Underwood et al., 1992)은 주로 부정 정서에 집중되어 왔는데,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이 대인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동들은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를 표현한 경우,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을 기대하므로 정적정서보다 부정정서를 더 많이 조절한다. 석 달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어머니는 영아의 부정적인 표현에 반응을 덜 나타내었다(Malatesta & Haviland, 1982). 이처럼 영아기에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사회적 상호작용 파트너로부터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받게 되면, 아동기에 이르러서는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더 많이 조절하게 된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정서뿐 아니라 심지어 행복이나 자부심 같은 정적인 정서표현도 조절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정적인 정서일지라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온건하게 표현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Underwood, 1997).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맥락에 걸맞은 정적인 정서의 현명한 조절이 나이에 아동 집단에서 더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부적인 정서 표현의 결과는 상대방의 신체적 공격이나 언어적 비난과 같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 비교적 예측하기 쉬운 반면, 정적인 정서 표현의 결과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정서와 정적정서의 조절은 아동의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상이한 역할을 하며 행동문제와의 관계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부정정서 조절에만 집중되어 아동기의 정적정서 조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정서 조절을 부정정서와 정적정서로 구분하여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련의 선행연구(Carroll & Steward, 1984; Underwood et al., 1992)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서를 조절할 때 아동이 갖는 동기에 관심을 가졌다. 어린 유아도 정서를 조절할 수 있으나(Gross & Harris, 1988), 정서조절을 위한 정서표출 규칙의 사용이 의식적인지 또는 무의식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내적인 감정을 숨기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인지, 아직 어린 아동에

게는 내적 정서를 숨기기 위한 복잡하고 의식적인 전략을 사용할 능력이 없으며 단지 친절의 규범을 학습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 연령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를 살펴본 연구들은 8, 9세 아동의 절반 정도는 자기가 정서를 조절한 동기를 언급하였으나, 취학 전 유아는 정서조절의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며(Carroll & Steward, 1984),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조절 동기를 더 잘 설명한다(Underwood et al., 1992)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사회화의 영향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정서조절의 동기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정서조절을 하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조절의 동기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동기의 정서조절 능력은 정서조절 동기와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서조절 동기는 정서조절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데, 그 기대를 기준으로 행동의 규준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보존하기 위한 친사회적(other-protective) 동기와 자기 자신과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호적(self-protective)동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화의 결과로 아동의 자기-보호적인 동기보다 친사회적 동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Gnepp & Hess, 1986). 반면 다른 연구(Zeman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8)들은 정서조절 동기를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대인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기보호적 차원의 동기를 관계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로 구분하고, 이외에 친사회적 동기와 정서조절에 관한 문화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규칙 지향적 동기를 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Zeman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8)는 4가지 동기 중에서 아동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동기를 모두 제시하고 각 동기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를 질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를 조사한 연구(한유진·유안진, 1998)에서는 규칙 지향적 동기의 사용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자기 보호적 동기에서 관계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가 혼합된 반응이 나타나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기보호적

동기와 친사회적 동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자신에게 돌아올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자기보호적 동기와는 달리 친사회적 동기는 상대방의 입장과 정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적응에 도움을 주어 심리사회적 적응을 반영하는 행동문제와 관련성을 나타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 동기와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없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와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 표현과 회피, 왜곡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이며(임희수·박성연, 2002; Eisenberg & Fabes, 1994), 여아들은 분노와 실망을 더 잘 감춘다(Cole, 1986; Saarni, 1984). 아동의 성별에 따라 정서조절 동기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분노를 조절함에 있어서 남아는 상대방으로부터의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높았고, 여아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된다는 동기가 높았다(이지선·유안진, 1999). Zeman과 Shipman(1998)도 분노와 슬픔 상황에서의 정서조절에서 여아의 친사회적 동기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행동문제도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불안 행동, 위축행동은 여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서선주, 1999), 공격행동은 남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서선주, 1999; 한미현, 1996). 이와 같은 성차는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아의 경우 심한 행동문제 집단이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한 반면, 여아의 정서조절과 행동문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Cole et al., 1994)와 정서조절 능력은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서 사회적 유능감과 관계가 더 명백하게 나타난 연구(McDowell et al., 2000)를 고려할 때,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기 아동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6세가 되면 실제적인 정서와 겉으로 드러난 표정을 구별하여 의도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기 시작

(Gross & Harris, 1988)하지만, 나이든 아동은 슬픔과 실망의 정서를 더 자주 조절할 수 있다(Gnepp & Hess, 1986; Saarni, 1979). 정서조절 동기도 중기 아동기가 되어야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며(Underwood et al., 1992), 부적정서뿐 아니라 정적정서도 조절할 수 있다(Underwood, 1997). 또한 아동기는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표출되는 행동문제가 배양되어 기초증상이 나타나며, 이 시기의 행동문제는 이후의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므로(Campbell, 1990), 문제행동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정서조절의 시작시기와 발달에 주된 관심을 두어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져왔으므로, 상대적으로 아동 중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 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 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기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우선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 행동문제를 성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정서를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로 구분하고, 성별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와 행동문제의 하위요인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세밀하게 탐색하며, 나아가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정서조절 동기 및 행동문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와 행동문제간의 상관관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D 초등학교를 다니는 4학년 5학급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총 1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한 결과, 135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부실기재를 제외하고, 실험에 참가한 최종 122명의 아동(남 64명, 여 58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9.3세 이었다.

### 2. 연구도구

#### 1) 정서조절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Gnepp & Hess, 1986; Harris, Donnelly, Guz, & Pitt-watson, 1986, Saarni, 1979; Underwood et al.,

1992)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한 한유진·유안진(1998)의 연구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이 정서표현을 조절하기에 적절한 갈등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8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이 중 4가지는 정적정서<sup>1)</sup>를, 나머지 4가지는 부적정서<sup>2)</sup>를 나타내었다. 아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림 카드 8장을 제작하였다.

이야기 속 주인공의 언어적 반응과 얼굴표정에 대한 대상 아동의 보고는 선행연구(Underwood et al., 1992)의 분석기준을 기초로 하여 그 상황에서 경험한 정서와 표현된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상황에 맞게 올바른 정서를 조절한 경우에는 1점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을 주었다. 따라서 한 아동

- 1) 수학기험 이야기, 게임 이야기, 못된 친구가 넘어진 이야기, 연극 주인공 이야기
- 2) 생일선물 이야기, 비밀폭로 이야기, 배 아픈 이야기, 유머이야기

〈표 1〉 정서 에피소드의 내용에 따른 범주, 사례 및 배점

제목	에피소드 내용	범주	사례	배점	
부적 정서: 할머니의 생일선물	생일날이었어요. 멀리 사는 할머니가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엄마와 할머니 앞에서 선물을 풀어보니 아기들이나 가지고 노는 유치한 장난감이었어요.	경험한 정서이해		화가 났어요. 속상했어요.	
		표현된 정서	정서조절	고맙다고 할머니께 말했어요.	1
			정서조절 안함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0
		정서조절 동기	친사회적	할머니가 실망하실까봐 할머니가 슬플까봐	1
자기보호적	버릇없다고 야단맞을까봐서요		1		
정적정서: 수학기험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보았어요. 끝나고 답을 맞추는데, 옆에 앉은 짝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수학 점수를 올리지 못하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데, 점수가 오히려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다 맞추어보니 나는 놀랍게도 처음으로 100점을 받게 되었어요.	경험한 정서이해		기쁘다	
		표현된 정서	정서조절	친구 앞에서 기쁘지 않은척 한다. 무표정한 얼굴을 한다.	1
			정서조절 안함	기뻐서 웃는다.	0
		정서조절 동기	친사회적	친구가 속상할 것 같아서	1
자기보호적	친구들이 잘난척 한다고 할것 같아서		1		

당 정적 차원에서 0~4점, 부적 차원에서 0~4점까지의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정서를 조절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서를 조절하여 1점을 받은 아동의 반응원인에 대한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한유진·유안진, 1998)를 기초로 자기보호적 동기<sup>3)</sup> 또는 친사회적 동기<sup>4)</sup> 중 하나로 범주화하였다. 정서조절 동기가 자기보호적 동기로 구분되면 자기보호적 동기에 1점을, 친사회적 동기로 구분되면 친사회적 동기에 1점을 주었다. 예를 들어 8개의 상황에서 모두 정서조절을 하였고, 그 중 5개의 상황에서는 자기보호적 동기를 3개의 상황에서는 친사회적 동기를 사용하였다면, 이 아동의 정서조절동기 점수는 자기보호적 동기 5점, 친사회적 동기는 3점이다.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는 훈련을 마친 평정자 2인에게 아동이 응답한 내용을 주고 각자 분류하도록 하였다. 두 평정자는 97%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불일치된 내용은 두 평정자의 협의과정을 거쳤다. 동기의 범주가 불분명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의 동기의 범주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 (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를 토대로 한미현과 유안진 (1995)이 구성한 아동문제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행동문제는 과잉, 불안, 미성숙, 공격, 위축행동의 5가지 하위요인<sup>5)</s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당 8문항 씩 총 40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 및 점수부여 방식은 '아니다(1점)', '약간 그런 편이다(2점)', '매우 그렇다(3점)'의 3점 리커트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가 많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과잉 .73, 불안 .70, 미성숙 .84, 공격 .72, 그리고 위축행동 .61 이었다.

## 3. 연구절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면접 절차와 질문을 조정하였다. 본조사는 먼저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부실기재를 제외한 122명의 아동을 선정하였다. 면접은 4명의 아동학을 전공한 보조 연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보조 연구자들은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내용과 실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예비조사시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였다.

연구자는 아동과 간단한 활동을 통해 라포를 형성한 후, 이야기 속 주인공을 대상 아동이라고 가정하고 8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때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을 제시하였다. 남아에게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남아인 그림을, 여아에게는 여아 그림을 보여주었으며, 이야기 제시 순서의 효과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이야기를 들려준 후 연구자는 이야기의 주요 사건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상 아동이 이야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다음 "기분이 어떨 것 같니?(경험한 정서 이해)"라고 질문하여 주인공이 실제로 경험하는 내적정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아동이 상황에 맞는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한 경우, "그렇게 느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니?(반응:표현 또는 조절)"라는 질문을 통해 실제로 경험한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기 부적절한 상황에서 대상 아동이 정서를 조절할지 또는 표현할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

- 3)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
- 4) 관계의 보호나 유지를 위한 동기
- 5) 과잉(부산한 행동이나 급한 성미, 주의집중 곤란 등의 주의산만한 행동), 불안(불안이나, 긴장, 걱정 등의 행동), 미성숙(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하거나 어른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행동), 공격(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는 행동), 위축행동(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행동)

로 “왜 그렇게 할 거니? (반응의 동기)”라는 질문을 통해 정서조절을 한 경우 그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번째 질문에서 정서를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 아동도 세번째 질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이 정서조절의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서를 표현한 이유에 대한 반응은 분석하지 않았다. 아동이 자유롭게 언어적 반응을 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며, 아동의 반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서를 나타내는 표정카드도 함께 제시하여 주었다. 이때 아동의 모든 반응은 응답지에 실험자가 기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 정서조절 동기 및 행동문제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정서조절 능력, 정서조절 동기 및 행동문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서조절 점수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개의 에피소드에서 정서조절을 한번도 하지 못한 아동은 없었으며, 1점 2명, 2점 2명, 3점 4명, 4점 12명, 5점 18명, 6점 26명, 7점 28명, 8점 30명 이었다. <표 2>에 따르면 정서조절의 총합은 남아가 평균 6.00점, 여아가 평균 6.31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상황별로 살펴보면, 부적정서 상황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조절

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677, p < .01$ ). 정적정서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조절 동기는 남녀 아동 모두 친사회적 동기보다 자기보호적 동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동기에서는 남아가 평균 .88점, 여아가 평균 1.66점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동기를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t = -3.207, p < .01$ ). 반면, 자기보호적 동기는 남아가 평균 3.84점, 여아가 평균 3.24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정서조절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 무응답의 경우 남아가 평균 1.28점, 여아가 평균 1.4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행동문제는 남아가 평균 55.59점, 여아가 평균 58.38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하위요인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불안행동( $t = -2.466, p < .05$ ), 미성숙행동( $t = -3.499, p < .01$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격행동( $t = 2.052, p < .05$ )은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성별(N)

	남(64) M(SD)	여(58) M(SD)	t
전체	55.59(8.04)	58.38(9.21)	-1.966
과잉행동	12.52(2.99)	13.61(5.22)	-1.932
행동 문제	불안행동 11.55(2.90)	12.91(2.90)	-2.466*
위축행동	10.23(2.06)	9.97(1.56)	.859
공격행동	10.10(1.54)	9.41(1.60)	2.052*
미성숙행동	11.19(2.05)	12.48(2.27)	-3.499**

\*  $p < .05$ , \*\*  $p < .01$

<표 2>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 성별(N)

	남(64) M(SD)	여(58) M(SD)	t
정서조절 능력	전체 6.00(1.88)	6.31(1.35)	-1.305
	정적정서 3.00(1.07)	2.86(1.05)	.718
	부적정서 3.00(1.04)	3.45(0.78)	-2.677**
정서조절 동기	자기보호적 3.84(2.26)	3.24(1.75)	1.636
	친사회적 .88(1.49)	1.66(1.16)	-3.207**
	무응답 1.28(2.05)	1.41(1.09)	1.334

\*\*  $p < .01$

####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와 행동문제간의 관계

위의 <연구문제 1>의 결과를 통해 정서조절 능력, 정서조절 동기 및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 2>에서는 성별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와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보다 세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두 변수의 하위요인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적정서 조절은 과잉행동( $r = -.261, p < .05$ )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부적정서 조절은 과잉행동( $r = -.289, p < .05$ ) 및 공격행동( $r = -.345, p < .01$ )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남아가 정적정서 조절을 잘 할수록 과잉행동을 덜 나타내었고, 부적정서 조절을 잘 할수록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미성숙 행동은 정적정서( $r = -.318, p < .05$ )와 부적정서( $r = -.374, p < .001$ ) 조절에서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여아는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미성숙한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하위요인간의 관계

정서조절 능력 하위요인	행동문제 하위 요인					
	성별(N)	과잉	불안	위축	공격	미성숙
남아 정적정서	(64)	-.261*	-.002	.046	-.183	.176
남아 부적정서	(64)	-.289*	-.123	-.119	-.345**	-.047
여아 정적정서	(58)	-.119	-.185	.130	-.122	-.318*
여아 부적정서	(58)	-.040	.170	.043	.050	-.374**

\*  $p < .05$ , \*\*  $p < .0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정서조절 동기와 행동문제 각 하위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남아의 경우 친사회적 동기는 공격행동( $r = -.253, p < .05$ )과 의미있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친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정서조절을 하는 아동일수록 공격행동의 수준이 더 낮았다. 정서조절 동기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아동은 불안행동( $r = -.303, p < .05$ )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나타내었다. 반면, 자기보호적 동기는 행동문제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에도 친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정서조절을 하는 아동일수록 미성숙행동

<표 5>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동기와 행동문제 하위요인간의 관계

정서조절 동기	행동문제 하위 요인					
	성별(N)	과잉	불안	위축	공격	미성숙
남아 자기보호적	(64)	-.167	-.060	-.077	-.045	.124
남아 친사회적	(64)	-.122	-.195	-.018	-.253*	-.051
남아 무응답	(64)	.126	.303*	.238	-.017	-.044
여아 자기보호적	(58)	-.159	.155	.190	-.076	-.184
여아 친사회적	(58)	-.005	.052	.157	.217	-.299*
여아 무응답	(58)	-.001	-.151	.022	-.146	.096

\*  $p < .05$

( $r = -.299, p < .05$ )을 더 적게 보였다.

### 3.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가 행동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증( $D-W = 1.8 \sim 1.9$ )을 통해 오

<표 6>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구분	독립변인	B	$\beta$	R	R <sup>2</sup>	F 값
행동문제	남아(64)	부적정서조절	-2.954	-.459**	.402	.161	2.837*
	여아(58)	정적정서조절	-5.293	-.642**	.454	.206	3.444*
		친사회적 동기	-3.635	-.485**			

\*  $p < .05$ , \*\*  $p < .01$



차향간의 자기 상관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6〉에서처럼, 남아의 경우 정서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 동기의 하위 요인 중 행동문제를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부적정서 조절( $\beta = -.459$ )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6.1%였다. 여아의 경우, 행동문제를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정적정서 조절( $\beta = -.642$ ), 친사회적 동기( $\beta = -.485$ )의 순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20.6%였다.

####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로 아동의 부적정서 조절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고,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로 구분하고, 성별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 및 정서조절 동기와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아는 남아에 비해 분노, 고통 등 부적정서를 더 많이 조절한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부적정서의 조절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남아와 여아가 각기 다른 정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에게는 공격성과 같은 부적인 정서 표현을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더 허용(Condry & Ross, 1985)하거나 묵인하는데 반해, 여아에게는 내면적인 민감성을 요구하고 부적인 정서표현을 조절하도록 엄격하게 사회화한다. 심지어 여아의 노골적인 정서 표현은 벌을 받기도 한다(Lutz, 1990). 이러한 상이한 사회적인 기대와 요구가 결국 정서조절 능력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남아와 여아가 정서표출 규칙의 획득에 있어서 발달적으로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McDowell et al., 2000).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표출 규칙의 사용은 여아보다

는 남아의 경우 발달의 후반부에 출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추론은 정서표출 규칙의 성차와 연령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라 정서조절 동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친사회적 동기를 더 많이 보였다. 여아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고자 정서를 조절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하였다. 이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관계 지향적 동기를 가지고 정서를 조절한다는 선행연구(한유진·유안진, 1998)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 또한 정서 사회화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의 결과로 해석된다. 여아는 남아보다 양육적인 존재로 사회화됨으로써 타인의 정서적 욕구에 주의를 보내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유지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여아는 대인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아는 자신이 부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또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한다(Underwood, 1997). 정서조절 동기에서 성차가 나타난 것은 여아가 남아보다 상대방의 부적 반응을 더 많이 예측하므로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하여 부적절한 정서를 조절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전반적인 행동문제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아는 남아에 비해 불안행동과 미성숙 행동을 더 많이 보인 반면, 남아는 여아보다 공격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서선주, 1999; 한미현, 199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크게 외현적 증후군과 내면화 증후군으로 대별되고, 내면화 증후군은 대체로 남아들보다 여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반면, 남아의 경우는 주로 과잉행동이나 공격행동 등의 외현적 증후를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인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넷째, 아동의 정서조절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남아는 정서조절 능력이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적 행동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갈

등 상황에서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할수록 주의가 산만하거나 보통 수준이상의 과도한 활동, 남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파괴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덜 보였다. 남아의 부적정서 조절은 특히 공격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갈등 상황에서 화, 분노 등의 부적정서를 그대로 폭발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불쾌감 조절을 잘 할수록 아동은 공격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정서 상황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정서의 이유를 이해할 때 복잡한 단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Bohnert, Cmic & Lim, 2003)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또래 집단 내 수용 및 지위와 관련되므로(Putallaz & Sheppard, 1992), 정서조절 능력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하여 행동문제의 발생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여아는 정서조절 능력과 미성숙한 행동간에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갈등상황에서 정서표출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정서조절을 하지 못한 여아는 어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기보다 어린 아동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등 나이보다 어린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정적정서조절 능력과 미성숙 행동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적정서는 상대방을 배려하여 비록 자신이 기쁘더라도 그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므로 좀 더 성숙한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아는 과잉, 공격행동 등 외현적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나고, 여아는 불안, 미성숙 행동이 높게 나타난 <연구문제 1>의 결과를 고려할 때, 정서조절 능력이 남아와 여아 모두 이 요인의 행동문제의 감소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는 주목할만하다. 자신과 타인이 정서 이해, 화가 나는 사건에 대한 대안적인 반응 익히기, 적절한 반응에 대한 롤 플레이 연습 등 정서조절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입은 남아와 여아 모두 행동문제 감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부적정서에 집중되어 왔는데, 부적정서의 체험은 개인에게 고통스럽고

대인관계에서 표현될 경우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부적인 정서 조절 능력뿐 아니라 행복과 기쁨 같은 정적인 정서 조절 능력도 아동기의 행동문제와 관련됨을 보였다. 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 부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보다 신체적 공격이나, 언어적 비난과 같은 즉각적인 부정적 반응은 덜 예측된다. 그러나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정적정서를 그대로 표현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결국에는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어린 아동 보다는 나이드 아동이 정적정서를 잘 조절한다는 연구(Underwood, 1997)결과는 정적정서의 조절이 더 많은 인지적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인지적 능력이 행동문제의 감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상대를 배려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친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정서를 조절할수록, 남아는 공격행동이, 여아는 미성숙 행동이 더 적게 나타났다. 즉, 이 시기부터 아동의 내면적인 사고나 의도도 아동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돌아올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자기보호적 동기와는 달리 친사회적 동기는 상대방의 입장과 정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적응에 도움을 주어 심리사회적 적응을 반영하는 행동문제와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행동문제에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부적정서 조절을 잘 할수록 행동문제의 수준이 낮았고, 여아는 정적정서 조절을 잘 할수록, 친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정서를 조절할수록 행동문제의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 아동들이 겪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므로 행동문제를 수정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자료의 성격상 아동이 정서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가상적인 상황을 통해 조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직접관찰을 통한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각각의 방법과 행동문제와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령, 기질과 같은 아동 개인의 특성이나,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변인에 따라 기질과 관련되므로 (Eisenberg & Fabes, 1992),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정서조절과 행동문제간의 관계의 정도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적인 특성 변수와 사회적 환경 변수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지역의 아동들을 유의 표집하였고, 대상수가 적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많은 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가 대부분 부적정서 상황에서의 조절 능력만 살펴본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정서상황을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로 나누어 봄으로써 정적정서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정서조절 및 정서조절 동기와 관련된 행동문제 하위요인을 탐색하고,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힘으로써, 현장의 교사 및 학부모에게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동이 정서를 잘 조절하는 것이 행동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은 교육적인 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즉,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표현을 억제하거나 세련된 방법으로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교육현장에서 인지적 능력의 강조만이 아니라 정서적 역량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일깨운

다. 따라서 아동기부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아동의 행동문제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밖으로 표현된 정서조절 뿐 아니라 정서조절의 동기도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아동을 위한 정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태도와 동기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서선주(1999). 아동의 역량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3), 97-106.

이지선, 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8.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임희수, 박성연(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미현,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한유진, 유안진(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황혜정(1999).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과 정서·행동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3(1), 67-84.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Bohnert, A. M., Crnic, K. A., & Lim, K. G. (2003). Emotional competence and aggressive behavior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1), 79-91.

Campbell, S. B. (1990).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 children: *Clin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NY: Guilford Press.
- Carroll, J. J., & Steward, M. S. (1984). The role of cognitive development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ir own feelings. *Child Development*, 55, 1486-1492.
- Cassidy, J., Parke, R.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 Cole, P. M., Zahn-Waxler, C., & Smith, K. D. (1994). Expressive control during a disappointment: Variations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835-846.
- Condry, J. C. & Ross, D. F. (1985). Sex and aggression: The influence of gender label on the perception of aggress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225-233.
- Davis, T. (1996). Gender differences in masking negative emotions: Ability or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1, 660-667.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kman, P., & Friesen, W. (1975). *Unmasking the fa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arner, P. W. (1996). The relations of emotional role taking, affective/moral attributions, and emotional display rule knowledge to low-income school-ag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19-36.
- Gnepp, J., & Hess, D. L.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splay rule.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 Gottman, J. M., & Mettetal, G. (1986). Speculations about social and affective development: Friendship and acquaintanceship through adolescence. In J. M. Gottman & J. G. Parker (Eds.), *Conversations with friends: Speculations on affective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ss, D., & Harris, P. L. (1988). False beliefs about emoti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misleading emotional displa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1, 475-488.
- Harris, P. L., Donnelly, K., Guz, G. R., & Pitt-watson,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57, 895-909.
- Hubbard, J. A. ,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Kurtines, C. A. (1989). Developing self-esteem and creativity in the preschool chil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 Lutz, C. A. (1990). Engendered emotion: Gender, power, and the rhetoric of emotional control in American discourse. In C. A. Lutz et al.(Eds.), *Language and the politics of emo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atesta, C. Z., & Haviland, J. M. (1982). Learning display rule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3, 991-1003.
- McDowell, D. J., O'Neill, R., & Parke, R.D. (2000). Display rule application in a disappointing situation and children's emotional reactivity: Relations with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6(2), 306-322.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utallaz, M., & Sheppard, B. H. (1992). Conflict management and social competence. In C.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arni, C. (1979).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24-429.
- Saarni, C. (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Thompson, R.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 Underwood, M. K. (1997). Peer social statu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 and control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3, 610-634.
- Underwood, M. K., Coie, J. D., & Herbman, C. R. (1992). Display rules for anger and aggression in school-age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66-380.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 Zeman, J. & Shipman, K. (1998). Influence of social context on children's affect regulation: A functionalist perspectiv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2, 141-165.

(2003년 10월 31일 접수, 2004년 1월 27일 채택)